

짧아진 가을... 겨울의류·화장품 잘 나간다

광주 백화점업계 패딩 매출 두자릿수 증가 진조해진 날씨에 보습제품 8~12% 신장 감기에방·피로회복 좋은 차 제품도 신장세

여름철 무더위가 가고 곧바로 쌀쌀한 겨울날씨가 찾아오는 등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가을 실종사태'에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을을 건너뛰고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화장품 보습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7.8%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같은 기간 화장품 보습제품이 전년 대비 12% 매출신장을 기록하는 등 갑작스레 건조해진 날씨에 화장품 보습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김현옥 화장품 판매책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보습 제품은 피부 보습과 더불어 안티에이징까지 두 가지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찬바람에 건조해지기 쉬운 입술을 보호하기 위한 립 제품도 인기다. 색조 제품에서도 매트 컬러의 립 제품은 전년 대비 4.

8% 매출이 신장했다.

특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세미 매트'가 최근 트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다크 레드, 버건디, 다크 오렌지 등과 같은 매트 컬러 립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겨울의류 제품 판매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광주신세계의 여성과 남성패션의 경우 각각 9.9%, 8.3% 역신장을 보이며 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보온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아우터 패딩 제품은 무려 12.2% 매출이 신장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여성과 남성패션은 각각 7.9%와 11.6% 역신장을 기록했다. 패딩매출은 10%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일~25일 겨울의류를 최대 70% 할인하는 아우터 특집전도 준비한 상태다.

보습제품과 겨울패딩 외에도 감기에방과 피로회복에 좋은 차 제품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도 당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건강식품 매출은 같은 기



(주)광주신세계 2층 닥스 매장서 고객이 밍크 머플러를 착용해보고 있다. 가을이 짧아지면서 겨울철 의류제품 등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신세계 제공>

간 3.8% 매출이 감소했지만 감기에방에 효과가 있는 갑입자와 국화차, 발차차 등 일부 차 제품 매출은 오히려 1.2% 매출이 오르는 등 신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환절기에 자칫 감기 또는 컨디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와 체력 보강을 위한 제품에 대한 반응도 좋다.

두뇌 활동, 피로 회복 효능을 가진 고산 지대 허브 '홍경천'과 '비타민B' 등이 대표

적인 상품으로 이 역시 매출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겨울이 예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습제품과 건강식품 등 지난해보다 겨울에 필요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을이 짧아지자 가을옷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 겨울옷을 구입하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KIA 한국시리즈 진출에 야구용품 불티

광주지역 이마트 128% 신장

프로야구의 인기와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진출 등으로 광주에서 야구 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야구용품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28.8% 신장했다.

최근 3년간 10월달 야구용품 매출구 성비도 지난 2015년 49.4%, 2016년 57.2%에서 올해 67.3%로 증가했다. 특히, 야구배트·글러브 제품은 같은 기간 2배 가량 신장했다는 게 이마트 관계자의 설

명이다.

이런 현상은 이달 가을야구 진출을 위한 각 팀간 순위싸움이 심해져 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여름철 무더위가 끝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팀장은 "단순히 야구를 보는 것 말고도 사회인야구 등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며 야구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야구관련용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구찌·사넬 등 명품 브랜드 가격 줄줄이 인상

구찌 7%·사넬 최대 17% ↑

구찌코리아가 지난달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7% 인상했다.

구찌코리아는 핸드백·지갑 등 스몰레더 제품과 신발 등 잡화의 가격을 평균 7%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찌코리아는 지난 4월에도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 올린 바 있다.

구찌코리아는 "제품별 가격조정은 부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글로벌 가격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발렌시아가도 지난달 중순부터 핸드

백·액세서리·신발 등 거의 전 품목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했다.

사넬은 지난 5월 전세계에서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일 백화점 판매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17%까지 인상했다.

'클래식2.55 라지'와 '마드모아젤 빈티지' 등 가방과 클래식 장지갑 등 지갑, 모카신 등 신발을 비롯해 여러 품목의 가격을 올렸다. 디올 또한 2주 정도 전에 가방·지갑 등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20~30%가량 인상했다.

에르메스는 올해 1월 가방·스카프 등 일부 품목가격을 평균 3%가량 올린 바 있다.

<연합뉴스>

환절기 감기환자 늘어 편의점 상비약 판매 84% 급증

감기약·진통제 등 큰 폭 증가

10월 들어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가 급증하자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과 마스크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

18일 편의점 체인점 씨유(CU)가 지난 1~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따뜻한 가을 날씨를 보이던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매출이 67.0% 증가했다고 CU는 전했다.

올해 상반기 안전상비의약품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1.9%였으나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상승률이 3배 이상 된 것이다.

GS25에서도 지난 1~15일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82.7%, 작년 동기 대비 97.7% 각각 급증했고,

세븐일레븐에서도 같은 기간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전월 동기보다 75.9%, 작년 동기보다 59.3% 뛰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매출 급증세는 감기약과 진통제가 이끄는 편이다. 판콜A, 판피린 등 감기약의 경우 이 기간 CU에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88.9% 증가했으며, 진통제인 타이레놀(4종)의 매출 상승률은 61.3%에 달했다.

전체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중 감기약과 진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5.6%에 달했다. 시간대별로는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시간대에 구매가 몰리는 추세를 보였다.

오후 8~10시 매출 비중이 18.1%로 가장 높았고, 오후 10시~자정이 17.4%로 뒤를 이었다. 일반 상품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오전 10~오후 2시 매출 비중이 6%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연합뉴스>

'우라늄 생수' 등 먹거리 안전 논란

장성 보해양조 앞 지하암반수 인기

하루 200여명 몰려 복새동

'살충제 계란'과 '간연 소시지' 등 잇달아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엔 '우라늄 생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가운데 장성군 보해양조 생산본부 앞에는 지하암반수를 떠가려는 소비자들이 붐비고 있다.

18일 보해양조(주)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생수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장성 생산본부 정문 앞 음용수대에 평소보다 많은 지역민이 찾아오고 있다.

방문객들은 지하 253m에서 끌어올린 지하암반수를 떠가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여명에서 우라늄 생수 논란 이후 200여명으로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게 보해양조 측의 설명이다.

우라늄은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로 그 자체가 중금속이기 때문에 신장 등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먹는 물을 검사할 때 우라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해양조도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연구에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보해 장성 생산본부에서 사용하는 암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라늄 성분은 0.2ppb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먹는 물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극소량으로, 보해가 소주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암반수 채취구역은 '우라늄 청정지역'이라는 게 보해양조의 설명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소주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80%를 차지하는 물이다"며 "우라늄 생수 논란으로 소비자들 불안이 커졌지만 보해는 검증된 깨끗한 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8일 오전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보해양조(주) 장성 생산본부 앞 음용수대에 지하암반수를 떠가기 위한 방문객들이 모여있다. <보해양조 제공>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